

아동문학 번역에서의 가화성(Speakability)

신 지 선
(세종대)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저출산 시대를 맞아 각 가정마다 어린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여기에 조기 교육의 열풍까지 더해져 출판사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도서 출판에 눈을 돌려, 아동문학이 일찍 발달한 서양의 그림책을 앞 다투어 번역하여 시장에 선보이는 상황이다.

참신하고 다양한 소재의 외국 작품을 국내의 어린이들에게 소개한다는 점에서 외국의 아동문학을 번역하여 출판하는 것 자체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런데 많은 아동문학 전문가들이 지적하듯이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질이 떨어지는 번역 작품이 범람하는 것이 사실이다. 아동문학의 특성과 교육적 가치를 고려해 볼 때 아동문학 번역은 그 어느 장르보다도 번역의 질이 문제가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올바른 번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동문학 번역의 기본적인

규범(norm)을 정립하는 것이 목적이다. 아동문학은 아동이 스스로 읽기도 하지만 어른이 소리내어 읽어주는 책이기도 하므로 어른이 소리내어 읽어줄 경우 ‘가화성(speakability)’¹⁾을 살려 번역시 의성어·의태어를 많이 사용하라는 규범을 세우고자 한다. 아동문학 번역시 규범 정립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아동문학의 특수성과 규범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아동문학을 번역할 때 규범의 필요성은 아동문학의 특수성을 살펴보면 명확해진다. 아동문학은 아직 육체적, 정신적, 언어적으로 미숙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적 목표가 뚜렷한 문학이다. 아동문학을 접하면서 어린이들은 언어 능력이 발달하고 평생의 독서 습관이 형성되며 창의력이 개발된다(이상현, 임원재, 심성경 등). 또한 책을 통해 삶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가 확립되고 국어에 대한 사랑과 이해가 증진된다(이성은, 김현희, 강문희 등). 문학작품을 읽을 때 번역이 잘못 되었다고 해서 크게 영향을 받을 성인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림책을 통해 모국어를 배우고 익히며 애정을 갖게 되는 어린이들은 잘못 번역된 동화나 그림책에서 막대한 영향을 받는다.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우수한 그림책이라고 하더라도 번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좋은 책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며 위에서 언급한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없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아동에게서 독서의 즐거움과 감동을 반감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질의 번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번역의 규범이 필요하다.

둘째, 아동문학 번역의 규범을 정립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규범 자체의 기능을 살펴보면 분명해진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규범이란 사회 구성원들 간에 준수하기를 기대하여 구속력이 생기는 일반적인 가치이자 사회적인 약속이다. 앤드류 체스터만(Andrew Chesterman)은 ‘번역이 점차 인간 행위의 한 형태로 인식되어 가고 있으므로 이론도 이런 행위의 법칙을 세우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1993: 2). 테오 헤르만스(Theo Hermans)는 ‘번역을 잘 하기 위한 방법을 익힌다는 것은 규범을 익히는 것이며 번역은 목적이 분명한 행위이므로 번역가들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규범을 이용한다’고 하였다(1991:

1) ‘Speakability(可話性)’라는 용어는 Snell-Hornby가 번역시 음운적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경우로 희곡 번역에서 ‘speakability’를 예로 들며 처음으로 사용하였다(1988: 35). 그런데 아동문학 역시 소리내어 읽어주는 특성이 있어서 이 개념을 적용해 보았다.

165). 이렇게 번역이라는 행위의 규범을 정립하면 실제 번역과정에서 지침이 되어 번역가들에게 크게 도움이 될 것이고, 규범을 준수하면 적어도 번역 작품의 최소한의 질은 보장될 수 있을 것이며, 규범을 고려하면 번역이 잘 되었는지를 평가할 때 척도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번역은 끊임없는 선택과 의사(意思) 결정의 과정이다. 용어 선택에서부터 문장 구조, 단락 구성, 담화 양식에 이르기까지 번역가는 매순간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번역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 주는 지침이 있다면 선택의 순간에 크게 참고가 될 것이며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설명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번역가가 규범을 인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번역시 하나의 고려 사항으로 작용하여 적절한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만약 규범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번역가는 선택의 기로에서 결정을 내릴 근거가 없어 직관에 의지하여 번역에 임할 것이다.

외국의 그림책을 통해서도 어린이가 독서의 즐거움을 깨닫고 아름다운 정서와 풍부한 상상력을 기를 수 있으려면 올바른 번역의 규범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어른이 소리내어 책을 읽어 줄 때 아동문학의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번역시 의성어와 의태어를 많이 사용하라는 규범을 정립하고자 한다.

1.2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아동문학은 ‘아동’을 ‘5세에서 10세까지의 유아기와 초등학교 저학년의 학생’으로 정의하여 이 연령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작품으로 한정하였다. 글을 아직 혼자 읽지 못하는 유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정한 이유는 이 연령대의 아동을 위한 작품에서 가화성(可話性)이 높은 번역이 더욱 절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분석 대상으로 아동문학 가운데 그림책을 선정하였다. 영어로 쓰인 외국의 창작 그림책 20권과 그 그림책들을 한국어로 번역한 그림책 20권을 선정하였다. 또한 번역된 그림책과 비교하기 위하여 한국의 아동문학가가 한국어로 쓴 창작 그림책 20권을 분석하였다.

규범이 가화성에 관련된 것이므로 분석 대상으로 영어 그림책을 선정할 때 ‘소리내어 읽기에 좋은 책(Read-Aloud)’으로 미국의 여러 교육기관²⁾에서 추천받

2) <올해의 소리내어 읽어주기 좋은 책(Read Aloud America Reading List)>, <전미 지

은 책만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한국어 번역문은 아동문학 전문 번역가가 아동문학을 전문으로 출판하는 출판사³⁾에서 펴낸 그림책 가운데서 선택하였다. 아동문학 전문 번역가와 아동문학 전문 출판사를 고집한 이유는 번역의 규범을 논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번역이 잘 되어 있어야 함이 전제 조건이므로 번역의 완성도가 높은 번역가와 출판사의 그림책을 선정하였다. 또한 번역된 그림책을 선정할 때, 각기 다른 번역가가 번역한 작품을 원칙으로 하였다. 특정 번역 현상이 일부 번역가의 개인적인 취향과 선호도에 따라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번역가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각기 다른 번역가가 번역한 그림책을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번역된 그림책과 비교 검토할 목적으로 선정한 한국의 창작 그림책은 아동도서 연구회, 한국 간행물 윤리 위원회, 소년 조선일보, 교보문고, 중앙일보 등의 기관에서 권장도서로 선정한 작품 가운데서 선택하였다. 번역의 규범을 마련하는데 한국 아동문학의 기준 역할을 하려면 누구나 인정하고 논란의 소지가 없는 우수한 그림책이어야 하므로 전문가들이 뽑거나 독자와 부모들이 인정한 권장도서 가운데서 선정하였다.

2. 본론

2.1 아동문학과 가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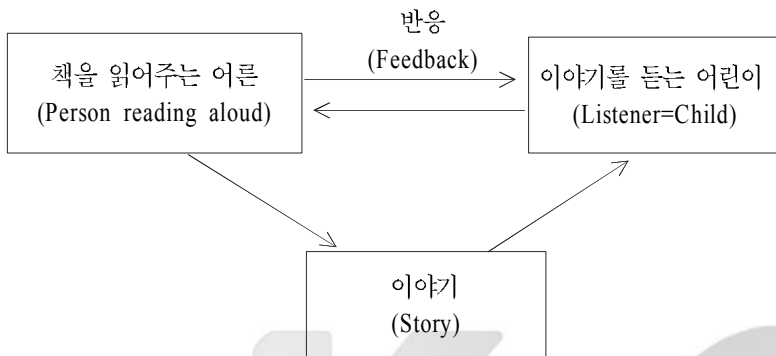
‘가화성’이라는 용어는 스넬-혼비(Snell-Hornby)가 번역학에서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가화성’이란 문자 그대로 ‘말로 하기 좋은 상태나 정도’를 의미한다. 연극의 희곡이나 영화의 대본처럼 번역문을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음성으로 표현되어 귀로 듣게 되는 경우, 번역시 ‘소리내어 표현하기 좋은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역 소리내어 읽어주기 본부(Read Aloud for Read Across America), <미국 교육방송 부모회(PBS Parents)>, <교육 자원 센터(Educational Resource Center)>, <교사들의 도서 연구회(TeacherViews)> 등의 기관에서 추천한 도서만을 선정하였다.

3) 비룡소, 한국 프뢰벨, 시공 주니어, 보림, 마루벌, 베들북 등.

우리나라 말로 어린이들을 위한 글을 창작하는 작가들은 아동문학이 소리내어 읽힌다는 점에 유념하여, 어떤 어휘를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 것인가를 신중히 따져볼 것이다. 그런데 아동문학을 전공하지 않은 번역가들은 ST의 내용 전달에만 급급한 채 아동문학이 소리내어 읽히는 책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기 쉽다. 이렇게 이루어진 번역은 아동문학 작품의 올바른 번역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아동문학에서는 번역된 책의 내용이 어떤 식으로 독자에게 전달되는지 전달 방식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성에 착안하여, 돌럽(Dollerup)은 가화성을 고려하여 번역하여야 하는 이유 중의 하나로 ‘이야기 계약(Narrative Contract)’이란 개념을 제시한다. ‘이야기 계약’ 관계를 돌럽은 다음과 같이 그림으로 정리하였다(2003: 82).



‘이야기 계약’이란 어른이 아이에게 책을 소리내어 읽어 줄 때 읽을 텍스트와 읽어주는 어른, 듣는 어린이 간의 상호 관계를 나타낸다. 이러한 ‘이야기 계약’이 양측에 모두 만족스러웠으면 어린이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 것이지만, 만약 실망스러웠다면 읽어주는 어른과 듣는 어린이간에 더 이상의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개념은 어른이 책을 읽어주는 과정에서, 책을 읽어주는 어른과 듣는 어린이 간에 어떤 관계가 맺어지며, 이들 간의 상호작용이 어린이의 독서 습관 형성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설명해 준다. 어린이에게 책을 읽어 줄 때, 읽어주는 어른과 듣는 아이 사이에 자연스럽게 이런 특

수한 관계와 상황이 설정되므로, 번역시 읽어줄 때의 효과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번역가가 번역을 할 때 이러한 특수성을 환기할 수 있도록 규범 정립이 필요한 것이다.

어린이가 한 권의 책을 읽거나 듣고 나서 다른 책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어 평생 책을 가까이하게 하려는 것이 아동문학 번역의 주된 목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책을 읽어주는 어른과 이야기를 듣는 어린이 사이에 '이야기 계약'이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할 것이다. '이야기 계약'이 지속되려면 책을 소리내어 읽어주는 어른이 어린이가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잘 읽어주어야 할 것이고, 어른이 잘 읽어주기 위해서는 읽어주기에 적합하게 번역된 그림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동문학 번역에서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번역하도록 번역의 규범을 설정하면 '이야기 계약'이 지속되는데 크게 기여를 할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아동문학 번역시 '가화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소리내어 읽어주는 활동의 의의와 교육적 효과를 우선 살펴보기로 하겠다.

2.1.1 소리내어 읽어주는 활동의 의의

2.1.1.1 아동의 정서발달

글자를 모르는 어린이가 문학의 세계를 처음으로 맛보게 되는 것과, 글자를 아는 어린이가 문학의 즐거움을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소리내어 읽어주는 엄마의 목소리를 통해서이다. 엄마가 아이를 곁에 두고 애정을 담아 책을 읽어 줄 때 그 아이가 느낄 정서적 안정감과 친밀감, 행복감은 쉽게 상상이 된다. 그런 환경에서 책의 내용을 더욱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이고, 다시 한 번 엄마의 사랑을 느끼고 싶어서라도 다른 책을 또 읽어 달라고 하며 책을 가까이 하는 습관이 형성될 것이다. 소리내어 읽어줄 때 아이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이상금은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그림책은 읽어주는 책이라고 했다. 혼자 읽을 수 있고 내용을 훤히 아는 책이라도 읽어주는 것이 좋다. 아이들이 그림책 읽어주기를 되풀이해서 원하는 것은 이야기 자체의 즐거움을 재확인하고픈 의도도 있지만, 그것

을 읽어주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서일 때가 많다. 목소리를 듣고 체온은 느끼며 듣는 그림책 이야기는 감동도 두 배로 진해진다.

(이상급 1998: 67)

오티넨은 “소리내어 읽어주면 아이들은 이야기와 읽어주는 상황에 정서적으로 더욱 밀착하게 된다”고 하였고(2000: 34), 블룸(Bloome)은 그림책을 읽어주는 것은 의사소통 과정일 뿐 아니라 사회적 과정임을 지적하였는데 이것은 “그림책 읽어주기가 사회적 관계 즉 교사와 유아, 부모와 자녀, 작가와 유아 간 관계를 포함하기 때문에 그림책 읽어주는 것이 사회적 관계를 도와줄 수 있다”고 하였다(1985 송정숙 재인용). 최윤정은 박사학위 논문 “그림 동화책 읽어주기와 토의가 유아의 친사회적(親社會的) 행동⁴⁾ 및 추론에 미치는 영향(1997)”에서 친사회적 그림 동화책을 읽어주고 토의한 경험은 유아의 돕기 행동 발달, 돕기 행동 빈도에 효과를 나타냈다고 실험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처럼 아동에게 그림책을 소리내어 읽어주는 활동은 아동의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도움이 됨을 알 수 있다.

2.1.1.2 아동의 언어능력 함양

그러면 소리내어 읽어주는 활동이 아동의 언어 능력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얼마나 미치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허크(Huck 1992)는 “책 읽어주기의 가치에 대해 텍스트에 나오는 어휘나 텍스트와 관련된 어휘의 발달에 도움이 되고 이야기 구조에 대한 이해가 발달하며 많은 정보와 문자에 대한 개념을 습득한다”고 하였다. 내이지(Nagy 1987) 등은 “8세 및 그 이상의 아동은 소리내지 않고 읽는 것로부터 어휘를 배우고 더 어린 유아는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어휘를 배운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읽기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활동은 유아에게 큰 소리로 책을 읽어주는 것”이라고 하였다(1998 김영애 재인용). 메이슨(Mason)은 “책 읽어주기 활동이 유아에게 새로운 단어와 구

4) ‘친사회적 행동’이란 외부 보상에 대한 기대 없이 자기 자신의 희생이나 위협이 수반되는 행위로서 자발적인 의지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행위이다. Honig와 Pollack은 친사회적 행동을 좁은 의미에서 나누기, 돕기, 협동하기로 분류하였다 (1990 최윤정 재인용).

절, 문장 이해, 새로운 개념 등을 재구성하게 해주며, 유아에게 책을 읽어주는 활동은 글자나 단어 형태를 분석하기 전에, 글자와 말소리 관계를 알게 하기 때문에 문어(文語)의 특징과 기능이 더 분명하게 된다”고 하였다(1990 송정숙 재인용). 크레이머(Cramer)는 “소리내어 읽기는 아동들의 언어를 풍부하게 해주고 아동들은 소리내어 읽기 활동을 하는 동안 무의식적이거나 의식적으로 단어, 구절, 문장을 암기하게 되고 그것을 활용한다”고 하였다(1975 오경미 재인용).

소리내어 책을 읽어주는 활동이 언어 발달에 미치는 실제 영향을 아동문학가의 이론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실제로 그러한 효과가 있는지 실험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오경미는 석사학위 논문 “소리내어 읽기 활동이 유아의 읽기 흥미와 능력에 미치는 영향(1997)”에서 전래 동요를 가지고 소리내어 읽기 활동을 한 후 유아의 읽기 흥미, 동화에 대한 내용 이해도, 어휘력이 실험집단에서 통제집단보다 높게 나타났음을 밝혔다. 또한 김영애는 박사학위 논문 “취침 전 책 읽어주기 활동과 어머니-유아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유아의 문해(文解)⁵⁾ 발달에 미치는 영향(1998)”에서 취침 전 책 읽어주기 활동이 유아들의 문해 발달에 효과가 있고, 유아의 책 읽는 습관 및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밝혔다. 이처럼 소리내어 책을 읽어 줄 때 실제로 아동의 어휘력이 발달하고 문장 이해도가 향상됨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금은 “듣기는 모든 언어 생활의 기초이므로 어릴 때부터 뛰어난 말을 들으며 자란 사람은 말에 대한 감각이 예민해지고 세련되어 그 말이 열어주는 세계에 익숙하게 들어갈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1998: 66). 이처럼 글자를 알기 훨씬 이전부터, 뛰어난 말을 들려주는 것이 아동의 언어 발달에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수많은 학자들이 그림책 읽어주기를 권장하고 있다.

2.1.1.3 아동의 독서습관 형성

아동에게 문학작품을 소리내어 읽어주는 것은 아동의 읽기 능력을 향상시

5) ‘문해(文解)’란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읽기는 글을 읽고 그 내용을 이해하여 분석하는 수준의 기능이며, 쓰기는 타인과의 의사소통을 위해 인쇄물을 사용하는 능력이다(김영애 1998).

켜 줄 뿐 아니라 독서에 대한 흥미를 자극하며 아동의 마음속에 일생동안 간직하게 될 문학에 대한 애정을 키워준다.

(이성은 2003: 470)

소리내어 읽어주는 활동이, 아동의 독서에 대한 흥미를 고취시킨다는 연구 또한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브롬리(Bromley)는 “유아가 그림책을 포함한 문학 작품을 통해 인간의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을 넓고 풍부하게 경험하며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좋은 문학적 작품을 읽음으로써 깊은 감동을 하게 되어 문학에 대한 항구적인 흥미와 취향을 계발할 수 있다”고 하였다.(1991 오경미 재인용). 챔버스(Chambers)는 가장 성공적인 독서 장려 방법으로 ‘소리내어 읽어주는 것’(Reading Aloud)을 강조하며 “매일, 모든 아이들에게, 모든 수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다니는 동안은 내내 읽어주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하였다(1993 김현희 재인용). 스스로 책을 읽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나이의 아동에게도 기회가 있으면 소리내어 읽어주기를 권하는 이유는 책을 소리내어 읽어줄 때 아동에게 눈으로 읽는 것과는 또 다른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소리내어 읽어주는 활동이 아동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며 정서적, 언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아동문학을 번역할 때 아동문학은 어른이 소리내어 읽어주는 책이라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소리내어 읽기에 좋은 글로 번역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 결과 위에서 언급한 소리내어 읽어 줄 때의 갖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기 힘들 것이다.

리듬감, 운율, 감각적 표현 등 가화성을 높이는 요소가 작품 속에 살아있지 않으면, 읽어주는 어른 입장에서도 재미있게 읽어주기가 어렵고, 듣는 아동의 입장에서도 흥미가 반감될 것이다. 더구나 글을 아직 직접 읽지 못하고 듣는 것만으로 책의 내용을 이해해야 하는 아동의 경우에는, 읽어주기 좋은 특성이 더욱 중요한 요소로 부각된다. 아동문학이 희곡을 제외한 일반 문학과 크게 다른 점 중의 하나가 바로 이 소리내어 읽어주는 특성이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번역의 규범이 정립되어 있다면 번역가가 읽어주기 좋게 번역하도록 이끄는 지침이 될 것이다.

2.1.2 가화성이 높은 아동문학의 조건

그렇다면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번역의 규범을 제시하기 위하여 가화성이 높은 그림책의 특징을 살펴보겠다.

이상금은 그림책의 글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림책의 글은 명석하고 간결하고 소박하고 아름다워야 한다. 시적인 언어, 리드미컬한 문장은 저절로 귀 기울이게 만든다. 그림책의 글은 산문이라든 리듬이 있어야 한다. 그림책의 글은 눈으로 보는 글이라기보다는 소리내어 읽어주는 글이어 귀로 듣고 즐기는 글이기 때문이다. 시를 낭송하듯 소리내어 읽기에 좋아야 한다. 어린이를 위한 글에는 의성어, 의태어가 많고 반복이 많아서 절로 리듬이 우러난다. 어느 작가의 체험에 의하면 글을 쓸 때 언제나 소리내어 읽어 보고 듣기 즐거운 글로 다듬는다고 했으며, 아이들에게 들려 주고 반응을 살펴며 참고한다.

(이상금 1998: 37)

김현희는 “그림책에 표현된 언어는 리듬감이 있고 반복이 많아서 즐거워야 한다”고 강조하였다(1999: 113). 단어, 구절, 문장 등이 반복될 때 자연스럽게 리듬감이 생기게 된다. 아동문학 평론가들은 그림책은 최대한 간결한 문장과 정확하고 경쾌한 언어로 쓰여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살려 의성어·의태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어린이에게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그림책에서는 의성어·의태어를 많이 사용할 것을 권한다.

김세희는 우리나라 말의 내적 리듬감은 글자, 단어, 구절, 문장의 반복과 의성어·의태어에서 생겨난다고 하였고, 이성은도 아동을 위해 글을 쓸 때 단어의 리듬감을 강조하며 그 책을 소리내어 읽었을 때 강한 인상을 창조하는 것이 좋다고 지적한다(2000 심성경 재인용). 다음에서 의성어와 의태어의 특징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소리내어 읽었을 때 강한 인상을 창조하는 것이 바로 의성어·의태어이다. 반복적 형태와 감각적인 표현으로 인하여 소리내어 읽을 때 강한 인상을 남기기 때문이다.

김선영은 석사 학위 논문 “아동을 위한 그림책 평가준거 개발과 타당성 연구(2004)”에서 여러 문헌을 검토하여 아동 대상 그림책 평가준거를 개발한 후 평가준거가 타당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림책에 대한 아동과 부모의 반응을

분석하였다. 아동문학을 어떻게 번역하는 것이 알맞은 것인지 객관적으로 제시해 줄 수 있는 번역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말로 창작된 아동문학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준거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김선영의 연구 결과는 의미가 깊다. 독서 자료와 그림책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도서 선정과 평가에 관한 이론을 살펴본 후 공통 견해를 항목화하여 평가준거를 개발하였다.

김선영은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그리고 아동문학 작품의 번역에 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그림책을 평가하는 기준이 제대로 개발되어 있지 않다. 더구나 2000년 이후 외국 그림책들이 경쟁적으로 번역되어 들어오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 독서 교육의 실정에 맞는 그림책 평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그림책 평가준거가 개발되고 이에 근거하여 아동에게 좋은 그림책이 추천된다면, 책을 권하는 부모나 교사들이 이를 믿고 이용할 수 있으며, 그림책을 출판하고 판매하는 기관에서도 유익한 자료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김선영 2004: 10)

이런 연구 목적 하에 김선영이 마련한 그림책 평가 준거표를 살펴보면 번역시 가화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함을 재차 확인하게 된다. 준거 설문 내용 중, 소리내어 읽어주는 특성과 관련된 항목⁶⁾은 다음과 같다.

6) 김선영이 마련한 그림책 평가 준거표는 평가 기준을 ‘내용적 측면’과 ‘형식적 측면’으로 구분하고 ‘내용적 측면’은 다시 ‘글’과 ‘그림’ 부문으로 나누었다. 글의 ‘내용적 측면’과 관련된 준거 설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글의 내용이 이야기체로 진행되는가?
2. 글의 내용이 기승전결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전개되었는가?
3. 주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잘 드러나 있는가?
4. 주제가 도덕성을 포함한 가치 있는 것인가?
5. 주제가 아동의 발달 단계에 적합한가?
6. 주인공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이 합리적인가?
7. 글의 내용이 아동의 생활이나 흥미와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있는가?

- 아동에게 소리내어 읽어주었을 때 즐거움을 주는가?
- 어른들이 아동에게 읽어주기에 무리가 없는가?
- 의성어나 의태어 등으로 글에 리듬감이 있는가?

이처럼 소리내어 읽어 주었을 때 아동에게 즐거움을 주고 어른이 읽어주기에 좋은 그림책은 의성어·의태어를 사용하여 리듬감을 살린 책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아동문학가들이 밝힌 소리내어 읽어주기에 바람직한 그림책의 문체적 특징을 살펴보았는데, 한결같이 리듬감과 반복적 용어를 통한 경쾌함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에는 ‘소리내어 읽기 좋은 책’을 선정하여 발표하는 교육기관과 단체가 무수히 많이 존재한다. 이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영어로 쓰인 아동문학 작품도 소리내어 읽기에 좋도록, 리듬을 살렸을 것이다. 영어에서 리듬을 살리는 방식이 한국어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면, 가화성을 고려한 번역의 규범은 사실상 필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ST를 있는 그대로 번역하면 TT에서도 리듬이 생길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러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영어와 한국어는 각각 어떠한 방식으로 글에 리듬감을 주는지 비교해 보자.

2.1.2.1 영어와 한국어의 리듬

한국어는 모든 음절을 하나하나 다 정확히 발음해 주는 언어이다. 그러나 영어는, 강음절은 강하게 발음하고 약음절은 상대적으로 약하게 발음하여, 음의

-
8. 글의 내용이 짧고 단순 명쾌한가?
 9. 전반적으로 언어 사용이 풍부한 편인가?
 10. 아동에게 소리내어 읽어 주었을 때 즐거움을 주는가?
 11. 어른들이 아동에게 읽어주기에 무리가 없는가?
 12. 사용된 어휘가 아동 수준에 적절한가?
 13. 일상생활 속에서 주고받는 생활언어가 잘 표현되어 있는가?
 14. 의성어나 의태어 등으로 글에 리듬감이 있는가?
 15. 반복된 표현으로 아동들이 이해하기 쉬운가?
 16. 단순, 간결한 문장이며 한 문장이 15단어를 넘지 않는가?
 17. 한 쪽 당 어려운 낱말의 수가 2-4개를 넘지 않는가?
 18. 문장의 띄어쓰기가 올바르며 끊어 읽기에 적당한가?

고저(pitch)가 뚜렷한 언어이다. 영어는 음절성(syllabic)을 지닌 분절음(segment)이 모여 음절(syllable)이 되고, 음절은 음보(foot)⁷⁾를 이루며, 이 음보는 음운 단어(phonological word)가 된다. 음운 단어는 운율(meter)을 형성하게 되므로 음절은 기본적인 운율 구성소이다(김미라 2002: 5). 영어의 리듬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것은 음보(foot)인데 음보는 강세를 받는 것으로 시작해서 다음 강세를 받기 전까지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김미라는 영어의 박자는 2박 또는 3박을 선호하므로, 음보는 강·약의 두 박자나 강·약·약의 세 박자로 이루어지게 되며, 이는 노래에서의 리듬이 2박 또는 3박 리듬으로 이루어진 것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하였다(2002: 8). 따라서 영어의 강세는 강하게 발음하는 강음절과 약하게 발음하는 약음절이 두 박자나 세 박자로 이어지며 강약의 리듬이 형성된다.

이처럼 영어에는 읽을 때 기본적으로 생기는 리듬이 있다. 영어의 전래동요(nursery rhymes)나 찬트(chant)에서는 각운(rhyme)⁸⁾을 맞추어 더욱 강한 리듬을 살릴 수 있다. 다음의 영어 전래동요를 소리내어 읽어보면 기본적인 강약의 리듬에, 각운이 형성하는 리듬이 더해짐을 느낄 수 있다.

Humpty Dumpty sat on a wall,
 Humpty Dumpty had a great fall;
 All the King's horses and all the King's men
 Couldn't put Humpty together again.

위의 글을 소리내어 읽어보면 고저율(tonal), 강약율(dynamic), 장단율(durational)에다가 각운까지 더해져 리듬감이 절로 느껴진다. 한국어에는 고저율, 강약율, 장단율은 없지만 각운은 살릴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에서 강한 리듬을 살리는 장치는 각운보다도 규칙적인 음절수를 반복하는 것이다. 영어의 음보에 해당하는 것이 한국어에서는 음군이라고 할 수 있다. 일례로 ‘아리랑 아

7) 음보는 각국 언어에서 ‘각(脚)’이라는 말로 불리는데 원시시대에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를 때 발장단의 단위, 즉 좌·우나 우·좌의 2보나 좌·우·좌의 3보가 차지하는 시간을 1음보로 보았기 때문이다(엠펙스 백과사전).
 8) 글귀의 마지막에 같은 음(音)을 갖는 글자를 되풀이해서 쓰는 수사법.

리랑 아라리오/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의 경우는 3·3·4조 운율로 3음보격과 같다(엠펙스 백과사전).

우리나라의 동요나 동시를 보면 규칙적인 음절수를 반복하여 리듬을 살린 경우가 많이 있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빨강빨강 종이로 무얼 접을까
파랑파랑 종이로 무얼 접을까
빨강꽃들 피어라 푸른 별판에
파랑새들 날아라 푸른 하늘에
(강소천)

위의 예는 7·5조에 각운을 살려 우리말의 리듬을 살린 경우이다. 이처럼 동요나 동시에서는 우리말에서 음절수를 일정하게 반복하여 리듬을 살릴 수 있다. 그런데 그림책의 글은 표현 양식상 동시나 동요가 아니기 때문에, 작가가 동시나 동요를 일부 삽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음절수를 맞추지 않는다. 그러면 음절수 이외에 우리나라의 아동문학가들이 글에 리듬을 주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본 논문의 분석대상인 우리나라 창작 그림책의 다음 예를 살펴보자.

[예 1] 형제는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다가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며 짹짹한 밤 하늘을 소리 없이 날아갔지. 바다 밑, 해를 넣어 두는 창고 문 앞에는 해치가 드르렁드르렁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 괴물 사형제는 살금살금 창고 안으로 들어가서 커다란 쇠그물에 해를 넣고는 다시 조심조심 걸어나왔어. 그 때까지도 해치는 세상 모르고 꿈아 떨어져 있었지.
(정하섭 2004)

[예 2] 휘이잉 바람이 세게 불면, 모두모두 얼굴을 가려요. '앗! 연이 웅덩이에 빠졌네.' '물에 젖어서 축 늘어진 내 연. 물이 뚝뚝 떨어지네. 그래, 맞아! 조심조심...'
(정순희 2004)

위의 예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그림책에서는 문장에 의성어나 의태어를 사용하여 리듬을 살리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비록 영어를 소리내어 읽을 때 느껴지는, 규칙적인 박자의 강약 리듬은 없지만 의성어·의태어가 주는 새로운 리듬은 느낄 수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말에서 규칙적인 음절수 외에 감각적인 리듬감을 살리는 데 알맞은 방법은 바로 의성어와 의태어의 사용이다. 그래서 읽여주기 좋도록 리듬이 살아있어야 하는 아동문학에서 의성어·의태어의 사용이 적극 권장되는 것이다.

의성어·의태어는 리듬감과 장단을 가진 언어일 뿐 아니라, 대부분이 반복된 형태여서 청각적으로 재미있고 유쾌하다. 또한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감각적으로 표현하여, 듣는 사람에게 강한 인상과 효과를 남긴다. 그래서 임원재가 강조하듯 “어린이에 대한 작품의 호소력을 높일 수 있다”(2000: 66). 작가가 아동문학의 목표와 가치, 문학적 특성을 모두 고려하여 작품을 표현하였다고 하더라도 독자 대상인 어린이에게 ‘호소력’을 갖지 못한다면 그 작품은 실패작이라고 할 수 있다. 어른들은 재미가 없는 책이라도 지식을 쌓기 위해 참고 읽지만 아이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어린이들에게 ‘호소력’을 가지려면 무엇보다 흥미가 있어야 하는데, 의성어·의태어를 사용하면 청각적으로 흥미를 불러일으켜 작품의 호소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말의 의성어·의태어가 아동문학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의성어·의태어의 정의와 형태적, 의미론적, 화용론적 특성을 살펴보겠다. 그리고 의성어·의태어의 사용을 번역의 규범으로 제시하는 것이 타당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영어와 우리말의 의성어·의태어를 비교하고자 한다.

2.1.2.2 한국어의 의성어·의태어

우리말의 ‘의성어’와 ‘의태어’⁹⁾란 무엇인지 그 정의부터 살펴보자. <표준국어대사전>에 보면 ‘의성어’란 사물의 소리를 흉내 낸 말이고 ‘의태어’란 사람이나 사물의 모양이나 움직임을 흉내 낸 말로 나와 있다. 신중진은 “의성의태어는

9) 의성어와 의태어를 가리키는 용어로는 의성어·의태어 이외에 음성 상징어, 흉내말, 시늉말, 상징어, 상징부사 등이 있다.

소리나 모양을 언어 형식으로 본떠서 표현하되, 그 언어의 음운체계에 속하는 일정 부류의 자음이나 모음이 교체되어도 의미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 뉘앙스 차이만 갖는 자립 어휘소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1998). 의성어·의태어가 외형상 일반 어휘와 구별되는 가장 두드러진 특성은 주로 반복의 형태로 쓰인다는 점일 것이다. 반복은 전체가 반복되는가 일부가 반복되는가에 따라 전체반복과 부분반복으로 나눌 수 있으며, 형태 그대로가 반복되는가 일부가 변하여 반복되는가에 따라 동음반복과 유음반복으로 나눌 수 있다¹⁰⁾(채완 2003: 56).

아동문학에서 의성어·의태어를 많이 사용할 것을 강조하는 주된 이유는 바로 이러한 단어의 소리가 주는 청각적 즐거움에 기인한다. 청각적으로 강렬한 인상을 남김으로서 기억에 오래 남아 어휘 습득 등의 언어 발달에도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 또한 의성어·의태어는 ‘부들부들-바들바들-보들보들-비들비들’처럼 모음을 달리하거나, ‘바들바들-파들파들, 반짝반짝-뽀짝뽀짝’처럼 자음을 달리하여 느낌과 세기가 다른 상징어를 많이 파생할 수 있으므로 그 쓰임이 무궁무진하다. 따라서 아름답고 재미있는 의성어·의태어를 다양하게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는 커다란 이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아동문학에서는 의성어·의태어로 많이 표현할 것을 적극 권장한다. 따라서 번역에서도 어린이를 위한 글에는 의성어·의태어를 많이 사용하여 번역해야 한다고 규범이 정립되어 있다면 번역가가 아동문학에서 의성어·의태어 사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번역시 많이 사용할 것이다. 이상으로 의성어·의태어의 형태적인 특성을 살펴보았는데 다음에는 의성어·의태어가 의미론적·화용론적 측면에서는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겠다.

신중진은 “언어 사용 측면에서 인간은 주어진 담화의 환경에서 언어적 표현을 될 수 있는 한 구체적이고 정밀하게, 나아가서 감각적이고 생동감 있게 사용하고자 하는 특성이 있으며, 의성의태어는 바로 구체적이고 정밀하고 감각적이며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자 하는 모국어 화자의 욕구에서 발로한다”고 하였다(1988: 66). 신중진이 석사 학위 논문 「현대 국어 의성의태어 연구(1998)」에서 예를 들어 설명한 바를 살펴보자.

10) 의성어·의태어의 구조를 두고 첩어, 중첩, 중복어, 반복 복합어, 반복 합성어 라고 부르기도 한다.

- ㄱ. 소녀가 웃는다
- ㄴ. 소녀가 희죽희죽 웃는다
- ㄷ. 소녀가 깔깔 웃는다
- ㄹ. 소녀가 싱글벙글 웃는다

위의 예문들은 모두 ‘소녀가 웃는다’를 표현했는데 ㄴ은 ㄱ에 ‘흡족한 듯 실없이 웃는다’는 구체적인 의미를 더해주고 있으며, ㄷ은 ‘경망스럽게 자지러지며 웃는다’는 구체적인 의미를 더해주고 있다. ㄹ은 ‘은근히 눈만 움직여 소리 없이 웃는다’는 의미를 더해 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ㄱ에 비해 ㄴ ㄷ ㄹ은 더 구체적이고 생동감 있고 감각적인 언어적 표현임을 알 수 있다.

위의 예에서 단순히 동작을 표현하는 동사만으로 이루어진 담화와 의성어나 의태어를 사용하여 표현한 담화 사이에는 내용과 분위기 전달 면에서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눈으로 읽을 때보다 소리내어 읽을 때 더욱 극명해진다. 어떻게 웃는지 구체적이고 감각적으로 표현한 글을 읽어 주었을 때는 색다른 흥미가 살아날 수 있다.

의성어와 의태어를 적절히 사용한 예로 최근 초등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도서 전집 『앗! 시리즈』의 제목을 꼽을 수 있다. 교육(Education)과 오락(Entertainment)을 결합하여 ‘에듀테인먼트(Eduainment)’를 완벽하게 구현해냈다는 평가를 받는 이 시리즈는 대부분이 번역된 책들로 구성되어 있다. 수많은 시리즈 가운데 일부 책의 제목을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¹¹⁾.

11) 채연은 의성어·의태어의 특징을 강조하고자 이 전집의 제목을 일부 소개하였다(2003: 159). 본인은 다른 한국어 제목을 추가하고 영문 제목도 함께 소개하여 번역 관점에서 비교하고자 한다.

자연 · 과학 시리즈		
수학이 수근수근	화학이 화끈화끈	사막이 바싹바싹
벌레가 벌렁벌렁	동물이 뒹굴뒹굴	바다가 바글바글
질병이 지끈지끈	지구가 지글지글	블랙홀이 불쑥불쑥
우주가 우왕좌왕	두뇌가 뒤죽박죽	컴퓨터가 키득키득
문화 · 예술 · 스포츠 시리즈		
종교가 중얼중얼	환경이 옥신옥신	방송이 신통방통
패션이 팔랑팔랑	연극이 희희낙락	건축이 건들건들
올림픽 울룩볼룩	꾸벅꾸벅 클래식	와글와글 월드컵

책 내용과 연관이 있는 의성어·의태어를 적절히 구사하여 읽기 이전부터 친근감을 높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내용들을 흥미로운 대상으로 만들었고 의성어·의태어가 연상 작용을 일으켜 내용 전달 측면에서도 그 어떤 제목보다 효과적이다. 위의 제목에 사용된 의성어·의태어만 보더라도 우리말의 의성어·의태어가 무척 다양함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문의 제목은 어떠한 방식으로 독자의 호기심을 흥미를 자아내는지, 위의 시리즈 중 영어로 쓰여진 ST의 일부 제목을 살펴보자.

‘앗! 시리즈’의 ST 제목		
<i>Bulging Brains</i>	<i>Ugly Bugs</i>	<i>Nasty Nature</i>
<i>Fatal Forces</i>	<i>Murderous Maths</i>	<i>Wicked World Cup</i>
<i>Chemical Chaos</i>	<i>Evolve or Die</i>	<i>Flaming Olympics</i>
<i>Disgusting Digestion</i>	<i>Suffering Scientist</i>	<i>Explosive Experiment</i>

우리말 번역에서는 흥겨운 리듬과 강렬한 인상을 남기기 위하여 의성어와

의태어를 사용하였는데, 영어 ST의 제목은 주로 두음을 같게 하는 방식으로 리듬감을 살렸다. 위의 도서 시리즈가 어른을 대상으로 하였거나, 교육적인 목적이 없었다면,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현재의 제목처럼 의성어나 의태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딱딱하고 어려운 주제를 다루는 교육적인 글들이 의성어·의태어를 사용함으로써 빨리 읽어보고 싶은 재미난 책으로 둔갑하였다. 이처럼 아동문학에서 의성어·의태어는 외형상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인해 운율감과 리듬감을 주어 기억하기 쉽고 회화적이고 감각적이며, 우리말의 형식적 아름다움을 느끼게 한다(채완 2003: 225).

그렇다면 영어로 된 원문을 한국어로 번역할 때 의성어·의태어로 표현하여야 하는 주된 이유를 살펴보기 위하여 우선 영어에는 어떤 의성어·의태어가 있으며 한국어의 의성어·의태어와 비교하여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조사해 보도록 하겠다.

2.1.2.3 영어의 의성어·의태어

의성어는 소리를, 의태어는 모습을 흉내내어 만든 단어라는 정의를 고려하면 언어마다 공통된 단어가 많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하게 한다. 그러나 의태어라는 범주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 언어도 많다. 채완에 따르면 영어나 프랑스어에는 ‘의태어’라는 용어 자체가 없다. 물론 영어에도 그 형태나 의미로 보아 ‘의태어’로 불릴 만한 어휘 부류가 있기는 하나 우리말의 의태어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첫째, 의태어의 종류가 너무 적다. 본인은 우리말의 의태어와 비교하기 위하여 형태가 유사한 영어의 의태어를 찾아보았는데 찾기가 쉽지 않았다. 그만큼 우리말의 의태어와 형태나 쓰임이 유사한 영어의 의태어는 종류가 극히 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의태어처럼 단어 안의 모음이나 자음을 달리하여 느낌이 다른 새로운 의태어를 만들어 내는 조어력(造語力)이 없다. 우리말의 의태어는 하나의 의태어를 모체로 느낌이 다른 또 다른 의태어를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데 영어의 의태어는 그렇지 못하다.

셋째, 의태어가 제한적으로만 사용된다. 우리말과 형태상 유사한 영어의 의태어는 아동을 위한 시나 전래동요 등 한정된 장르에서만 간혹 찾아볼 수 있다.

영어에는 우리나라 말의 의성어에 해당하는 단어 ‘onomatopoeia’만이 있을 뿐 의태어를 가리키는 어휘는 존재하지 않는다. 영어에 의태어가 발달해 있었다면 각각의 의태어를 집합적으로 가리키는 어휘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영어에는 의태어를 통칭하는 어휘가 없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나라 말처럼 의태어가 발달한 언어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런 이유에서 채완은 의성어·의태어는 외래어로 바꿀 수 없는 고유어의 마지막 보루로서, 그 다양한 어감 표현 방법을 보면 우리말의 보물 창고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는 소중한 어휘재라고 강조하였다(2003: 6).

2.2 의성어·의태어 사용 규범

SL과 TL의 의성어·의태어가 그 종류와 쓰임에서 크나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번역가가 아동문학을 번역할 때 의성어·의태어로 표현해야겠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TT에서 의성어·의태어를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의성어·의태어 사용을 규범으로 정립해 놓아야, 아동문학을 번역하는 번역가가 아동문학에서 의성어·의태어 사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번역을 할 것이다.

이번에는 의성어·의태어의 사용을 규범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함을 실제 사례 측면에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창작 그림책과 번역된 그림책 중 우수하다고 선정된 작품들에서 사용된 의성어·의태어의 종류와 빈도를 분석해 보겠다. 우리나라 창작 그림책에서 의성어·의태어의 사용 현황은 전혜실의 연구 결과¹²⁾를 참고로 하였다. 전혜실은 1999년부터 2002년 7월까지 출판된 유아용 도서 중에서 우리나라 작가가 쓴 창작 그림책 총 245권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창작 그림책의 형식, 그림, 본문 내용, 문체 등에 관해 총체적으로 분석을 하였는데, 그 중 의성어·의태어를 조사한 결과가 있다. 여기에는 의성어·의태어의 사용 유무(有無)와 사용된 의성어·의태어의 종류가 포함되어 있다. 이 조사 결과와, 번역된 그림책에서 사용된 의성어·의태어의 종류와 빈도를 분석하여 두 결과를 비교해 보았다.

12) 전혜실, 2003, “우리나라 창작 그림책에 대한 분석”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두 집단 모두 똑같이 82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는데 사용된 의성어의 종류를 비교해 보면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우리나라 창작 그림책에서 사용된 의성어의 종류는 사람을 표현한 경우 106개, 기타 85개, 동물 46개, 식물 7개로 총 244개였다. 번역된 그림책의 경우는 생물을 표현하는데 64개, 무생물을 표현하는데 42개로 총 106개가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창작 그림책에서 사용된 의성어의 종류가 번역된 그림책보다 두 배 이상 많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번역된 그림책에서, ST에 없는 의성어를 TT에서 의성어로 다양하게 표현하려고 노력하긴 하였으나, 여전히 우리나라 창작 그림책과 비교하였을 때 그 종류에서 많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분석대상으로 선정한 번역된 그림책들이 번역 규범의 기준으로 삼기에 적합한 우수한 번역작품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 아동문학 전문 번역가가 아동문학의 특성을 고려하여 번역을 잘 하여도, 우리나라 그림책만큼 다양하게 의성어·의태어를 사용하지는 못하였다. 그런데 의성어·의태어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번역가가 아동문학을 번역한다면, 번역문에서 더욱 의성어·의태어를 찾아보기가 힘들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창작 그림책에 사용된 의성어의 종류를 보면, ‘치카푸카’, ‘송당송당’, ‘포로롱퐁퐁’, ‘뽀뽀뽀’, ‘사르락’ 등 저자의 창의성이 돋보이는 의성어가 많이 눈에 띈다. 그와 비교해 보았을 때 번역된 그림책에서는 조금 더 일반적인 의성어를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아동문학은 다른 장르에 비해 ST로부터의 변환이 자유롭다고는 하나 과감히 새로운 의성어를 지어내어 번역하는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의태어의 경우,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창작 그림책에 사용된 의태어의 종류는 사람을 표현할 때 100개, 기타 56개, 동물 53개, 식물 9개로 총 209개였는데 번역된 그림책의 경우에는 생물을 표현하는데 사용된 의태어의 종류가 83개, 무생물의 경우가 38개로 총 121개였다. 번역된 그림책에서 사용된 의태어의 종류는, 의성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창작 그림책에 비해 절반 밖에 되지 않았다. 아동문학을 번역하는 모든 번역가가 의성어·의태어 사용의 중요성을 깨닫고, 번역시 의성어·의태어로 많이 표현한다면 텍스트의 가화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다.

이번에는 번역시 의성어·의태어가 얼마나 자주 사용되었는지 그 빈도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분석 방법은 우리나라 창작 그림책의 총 문장수와 의성어·의태어가 사용된 문장수를 세어, 전체 문장 가운데 의성어·의태어가 사용된 문장의 비율을 분석해 보았다¹³⁾. 이 결과를, 번역된 그림책에서는 얼마나 자주 의성어·의태어가 사용되었는지 같은 방식으로 조사하여 비교해 보았다. 분석 결과, 번역된 텍스트가 규범 정립의 기준이 되기에 적합한 우수한 번역임에도, 우리나라 창작 그림책이 의성어·의태어 사용 빈도에서 1.6배나 높았다. 우리나라 창작 그림책의 경우 총 1,951문장 가운데 의성어·의태어로 표현된 문장수는 409개로 사용된 빈도는 21%인데, 번역된 그림책의 경우는 총 1,810문장 가운데 의성어·의태어가 사용된 문장수는 234개로 빈도는 12.9%에 그쳤다.

특히 빈도가 10% 이하인 경우가 우리나라 창작 그림책에서는 2권 뿐이었으나, 번역된 그림책에는 8권이거나 있었고, 심지어 빈도가 0%인 경우도 있었다. 그 외에 빈도가 30% 이상으로 의성어·의태어가 자주 사용된 경우가 우리나라 창작 그림책에는 4권이거나 있었으나, 번역된 그림책의 경우는 1권에 불과했다. 분석 대상으로 선정한 번역된 그림책들이 각종 독서 관련 기관의 추천을 받은 권장도서임을 고려해 볼 때 다른 번역문의 경우는 의성어·의태어의 사용 빈도가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의 표에서 보듯이 실제 조사 결과, 의성어·의태어의 사용 빈도와 사용되는 의성어·의태어 종류가 번역된 그림책의 경우 우리나라 창작 그림책에 비해 많이 부족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의성어·의태어가 많이 사용되어 책의 내용에 더더욱 흥미를 느끼게 될 아이들과, 의성어·의태어가 거의 사용되지 않아 무미건조한 글을 듣게 될 아이들을 상상해 보면, 가화성을 고려한 번역 규범의 필요성을 깨닫게 된다.

2.3 가화성을 고려한 번역방법

2.3.1 의성어·의태어로 표현하기

의성어·의태어가 한국어에서 품사가 부사이므로 ST의 단어 중 품사가 형용사, 동사인 경우에만 번역시 의성어·의태어로 표현할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ST의 명사도 의성어·의태어를 사용하여 번역한 예가 많이 있었다. 아동문학 번역에서 의성어·의태어 사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품사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13) 분석 결과는 부록 참고.

번역한 것으로 짐작된다.

다음은 본 논문의 분석 대상인 번역된 그림책에서 의성어와 의태어를 삽입하여 감각적이고, 구체적이며, 생동감 있게 번역을 한 예이다.

[ST1] Little Bear's mother had not hunted very long before she heard a hustling sound that stopped now and then to munch and swallow.
(로버트 머클로스키 1999)

[TT1] 꼬마 곰의 엄마도 조금 가다가 부시럭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타박타박, 남남, 꿀꿀! (김서정 역 1999)

[ST2] Gullible ate... and ate... and ate until he'd eaten all fifty carrots. (마가렛 사논 1999)

[TT2] 껌뻌이는 우적우적, 와작와작, 당근을 열심히 먹었어요. 마침내 껌뻌이는 당근 50개를 몽땅 먹어 치웠답니다. (장미란 역 1999)

아동문학에서 특히 의성어의 사용이 다양하고 두드러진 것이 [ST2]의 ‘eat’ 처럼 ST에 먹는 단어가 등장하는 경우였다. [TT2]에서처럼 먹는 서술어는 ‘우적우적’, ‘와작와작’으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이외에도 ‘남남’, ‘꿀꿀’, ‘벌컥벌컥’, ‘질경질경’, ‘쩍쩍’, ‘홀짝홀짝’, ‘아삭아삭’ 등 많은 의성어가 사용되었다.

[ST3] And they were so close together that he tasted a Tremendous Mouthful by mistake. (로버트 머클로스키 1999)

[TT3] 게다가 딸기들은 또 서로 너무 옹기종기 모여 있어서 그만 실수로 한 입 가득 먹어 버렸답니다. (이수연 역 1999)

[ST4] So she went to bed again. Frances was not very tired and did not close her eyes. (리셀 호번 1998)

[TT4] 프란시스는 다시 침대에 누웠어. 눈만 말똥말똥, 잠이 오지 않았어. (이경혜 역 2004)

[ST5] As the sun was setting, they reached the grandest house Edward had ever seen. (마리안 코발스키 1999)

[TT5] 해질 무렵, 에드워드는 지금껏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주 으리으

린한 집에 도착했습니다. (신지식 역 1999)

[ST6] They smiled at the good and frowned at the bad and sometimes they were very sad. (루드비히 베벌먼즈 1998)

[TT6] 아이들은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을 보면 방글방글 웃었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을 보면 얼굴을 찡그렸고,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슬피하기도 했습니다. (이선아 역 2004)

[ST7] His aunt and uncle and cousin knew Gullible would believe anything that he was told. (마가렛 샐 1999)

[TT7] 삼촌네 가족은 꼼백이가 무슨 말이든지 꼼백꼼백 속아 넘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장미란 역 1999)

[TT7]에서는 주인공의 이름도 의태어로 표현한 예이다. ST의 주인공은 무엇이든지 잘 믿어서 누구에게나 속기 쉬운 아기 쥐로 이름부터 'Gullible' 로 이름에 잘 속는다는 특성이 드러나 있다. [TT7]에서는 이러한 주인공의 특성을 잘 살려 '꼼백이'라고 번역을 하였다. 외국의 그림책을 번역할 때 일반적으로 이름은 그대로 음을 살려 음차역(音借譯)을 한다. 여기에서도 그런 방식을 택했다면 '걸리블'이라고 번역하거나 혹은 의미를 살려 번역하려 해도 의태어로 표현하지 않고 '멍청이' 등으로 표현했다면 이름이 주는 느낌이 전혀 달라졌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꼼백이'라고 잘 속을 때 사용하는 의태어로 적절히 표현하여 흥미와 이해를 모두 높인 번역이라고 생각된다.

3. 결론

아동문학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적 목표가 분명한 장르이다. 아동문학의 이러한 교육적 가치와 의의 때문에 번역의 질이 그 어느 장르보다도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아동문학가들은 아동문학의 이러한 특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집필하여 아동을 위한 좋은 책을 선보인다. 그러나 외국의 아동도서를 번역하는 번역가는 아동문학을 어떻게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제대로 인식하

지 못하고 번역을 할 수 있다. 아동문학 번역시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규범이 정립되어 있다면 번역가가 번역과정에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이 되어 아동문학 번역의 전반적인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급격히 증가한 번역된 아동도서의 출판 규모를 고려해 볼 때 번역의 규범 정립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인식에서 출발하여 본 논문에서는, 아동문학 번역시 가화성을 고려하여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규범을 제시하였다. 즉, 아동문학은 소리내어 읽어 주기 좋게 번역시 의성어·의태어를 많이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다. 아동문학 전문가들은 혼자 읽을 줄 아는 아동에게도 어른이 소리내어 읽어 줄 것을 강조한다. 그만큼 소리내어 읽어주는 행위는 아동의 정서와 언어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소리내어 읽어주기 좋은 글의 조건으로 아동문학가들은 의성어·의태어의 사용을 적극 권장한다. 우리나라 말의 의성어·의태어는 반복된 형태로 글에 리듬감을 주고, 청각적으로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구체적으로 의미를 전달해 아동의 언어발달을 촉진한다. 또한 우리나라 말에는 발음이 독특하고 재미있는 의성어·의태어가 매우 풍부하여 아동들에게 모국어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 준다. 그런데 영어에는 의성어·의태어가 크게 발달해 있지 않아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하다 보면 의성어·의태어로 표현할 경우가 많지 않다. 실제로 연구대상 그림책을 분석해 본 결과, 우리나라 창작 그림책과 비교하여 번역된 그림책에는 의성어·의태어의 사용이 그 종류와 빈도에서 현저히 부족하였다. 따라서 의성어·의태어 사용을 번역의 규범으로 정립하여야, 번역된 그림책을 읽어주는 어른과 이야기를 듣는 아동 모두 의성어·의태어가 주는 청각적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강인연, 손영수. 2002. 『유아문학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양서원.
 김라경. 1996. “한국의 국제 저작권협약 가입과 번역출판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김서정. 2003. 『어린이문학만세』. 서울: 푸른책들.

- 김선영. 2004. “아동을 위한 그림책 평가준거 개발과 타당성 연구”.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영애. 1998. “취침 전 책 읽어주기 활동과 어머니-유아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유아의 문해 발달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 김재원. 2004. “한국어와 영어의 유음 음성상징”. 『영어영문학 연구 46-3』.
- 김현희, 박상희. 1999. 『유아문학교육』. 서울: 학지사.
- 대한출판문화협회. 『출판연감』. 1992년 - 2003년.
- 바스넷, 수잔. 2004. 『번역학 이론과 실제』. 김지원, 이근희 옮김. 서울: 한신문화사.
- 박경희. 1999. “어린이 그림책의 교육적 역할”.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동근. 1996. “현대국어 흥내말의 연구”.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 송정숙. 2003. “교사의 그림책 읽어주기 방법에 따른 유아의 읽기 능력 및 흥미 증진 효과 비교”.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 신중진. 1998. “현대국어 의성의태어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심성경 외. 2003. 『유아문학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 심은희. 1997. “우리나라에서 출판된 그림책의 장르 및 구조 분석”.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오경미. 1997. “소리내어 읽기 활동이 유아의 읽기흥미와 능력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원영희. 2003. 『원영희 교수의 일급 번역교실』. 서울: 현언.
- 이상금. 1998. 『그림책을 보고 크는 아이들』. 서울: 사계절.
- 이상현. 1987. 『아동문학강의』. 서울: 일지사.
- 이성은. 2003. 『아동문학교육 : 지식과 감성시대』. 교육과학사.
- 이차숙. 1992. “유아의 그림이야기책 읽기 활동에서 어머니의 매개적 역할이 유아의 문식성 발달 과정에 미치는 효과”.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임원재. 2000. 『아동문학교육론』. 서울: 신원문화사.
- 전혜실. 2003. “우리나라 창작 그림책에 대한 분석”.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채완. 2003. 『한국어의 의성어와 의태어』.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폴 아자르. 2000. 『책, 어린이, 어른』. 서울: 시공주니어.
- Álvarez, Román and Carmen-África Vidal (eds). 1996. *Translation, Power, Subversion*.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LTD.
- Chersterman, Andrew. 1993. "From 'Is' to 'Ought': Laws, Norms and Strategies in Translation Studies," in *Target* 5(1). 1-20.
- Dollerup, Cay. 2003. "Translation for Reading Aloud," in *Meta* 48(1-2). 81-104
- Leuven-Zwart, Kitty van and Ton Naaijken (eds). 1991. *Translation Studies: The State of the Art: Proceedings of the First James S Holmes Symposium on Translation Studies*. Amsterdam and Atlanta: Rodopi.
- Nord, Christiane. 1997. *Translating as a Purposeful Activity: Funtionalist Approaches Explained*. Manchester: St. Jerome Publishing.
- Oittinen, Riitta. 2000. *Translating for Children*. New York: Garland.
- Puurtinen, Tiina. 1998. "Syntax, Readability and Ideology in Children's Literature," in *Meta* 43(4). 524-533.
- Schäffner, Christina (eds). 1999. *Translation and Norms*.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LTD.
- Shavit, Zohar. 1986. *Poetics of Children's Literature*. Athens and London: The U of Georgia P.
- Shuttleworth, Mark and Moira Cowie. 1999. *Dictionary of Translation Studies*. Manchester: St. Jerome Publishing.
- Stolze, Radegundis. 2003. "Translating for Children- World View or Pedagogics?" in *Meta* 48(1-2). 208-221.

1. 분석 텍스트

<표 1> 우리나라 창작 그림책에서 의성어·의태어가 사용된 빈도

책제목	의성어·의태어가 사용된 문장수	총문장수	빈도(%)
스스로를 비둘기라고 믿은 까치	51	180	28.3
뽀끼뽀끼 숲의 도깨비	31	154	20.1
꼬꼬댁 꼬꼬는 무서워	43	137	31.4
황소와 도깨비	19	134	14.2
토끼와 늑대와 호랑이와 닭이와	12	130	9.2
열두 띠 이야기	17	113	15.0
잘 가, 토끼야	13	106	12.3
까치와 소담이의 수수께끼 놀이	30	102	29.4
손 큰 할머니의 만두 만들기	19	100	19.0
정배와 아가	19	99	19.2
푸름이와 영큼이와 킁킁이	10	96	10.4
모기와 황소	29	92	31.5
똥벼락	23	85	27.1
강아지똥	8	75	10.7
오리가 한 마리 있었어요	13	75	17.3
경수의 하루	15	75	20.0
심심해서 그랬어	55	67	32.8
해치와 괴물 사형제	25	66	37.9
세상에서 제일 힘센 수탉	2	36	5.6
바람 부는 날	8	29	27.6
계	409	1,951	21.0

<표 2> 번역된 그림책에서 의성어·의태어가 사용된 빈도

책제목	의성어·의태어가 사용된 문장수	총문장수	빈도(%)
잘자라, 프란시스	14	200	7.0
털끝 하나도 까딱하면 안되기	31	151	20.5
당나귀 실베스터와 요술 조약돌	12	145	8.3
피튜니아 공부를 시작하다	13	144	9.0
마이크 멀리간과 증기삽차	12	142	8.5
아기 오리들한테 길을 비켜 주세요	15	130	11.5
딸기따는 셸	22	118	18.6
백만마리 고양이	12	110	10.9
브렌다와 에드워드	10	86	11.6
껌뻑이가 괴물을 만났어요	15	83	18.1
게으른 피봉이	29	75	38.7
물고기는 역시 물고기야	12	66	18.2
개구리와 두꺼비는 친구	0	65	0.0
씩씩한 마들린느	8	56	14.3
아기 돼지에게 팬케이크를 주지 마세요	9	53	17.3
내가 아빠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1	48	2.1
때묻은 강아지 헤리	11	46	23.9
괴물들이 사는 나라	2	40	5.0
으뜸 헤엄이	1	28	3.6
아기 토끼 버니	5	24	20.8
계	234	1,810	12.9

<우리나라 창작 그림책>

번호	도서명	출판사	출판연도	글작가	그림작가
1	잘 가, 토끼야	창작과비평사	2003	이상권	이태수
2	바람 부른 날	비룡소	2004	정순희	정순희
3	토끼와 늑대와 호랑이와 담이와	시공주니어	2004	채인선	한병호
4	열두 띠 이야기	보림	2004	정하섭	이춘길
5	뽀기뽀기 숲의 도깨비	재미마주	2002	이호백	임선영
6	스스로를 비둘기라고 믿은 까치	문학동네	2004	김진경	이상권
7	심심해서 그랬어	보리	2004	윤구병	이태수
8	정배와 아가	한국프로벨	1995	김영희	홍성찬
9	해치와 괴물 사형제	길벗어린이	2004	정하섭	한병호
10	손 큰 할머니의 만두 만들기	재미마주	2005	채인선	이억배
11	푸름이와 영큼이와 컴컴이	웅진	1997	위상혁	양혜원
12	황소와 도깨비	다림	2004	이상	한병호
13	강아지똥	길벗어린이	1996	권정생	정승각
14	까치와 소담이의 수수께끼 놀이	사계절	2004	김성은	김종도
15	꼬꼬댁 꼬꼬는 무서워	도서출판 도깨비	2003	한병호	한병호
16	오리가 한 마리 있었어요	보림	2003	정유정	정유정
17	세상에서 제일 힘센 수탉	재미마주	2004	이호백	이억배
18	똥벼락	사계절	2004	김희경	조혜란
19	모기와 황소	길벗어린이	2003	현동엽	이억배
20	경수의 하루	보림	1995	송명호	최정은

<S-T 영어 그림책>

번호	도서명	출판사	출판연도	글작가	그림작가
1	Bedtime for Frances	Knopf	1998	Russell Hoban	Garth Williams
2	Don't Fidget a Feather!	한국프뢰벨	1999	Erica Silverman	S.D. Schindler
3	Sylvester and the Magic Pebble	Knopf	1998	William Steig	William Steig
4	Petunia	Knopf	1998	Roger Duvoisin	Roger Duvoisin
5	Fish is Fish	Knopf	1998	Leo Lionni	Leo Lionni
6	Make Way for Ducklings	Knopf	1998	Robert McCloskey	Robert McCloskey
7	Guess How Much I Love You	Knopf	1998	Sam McBratney	Anita Jeram
8	Lazy Ozzie	한국프뢰벨	1999	Michael Coleman	Gwyneth Williamson
9	Frog and Toad are Friends	Knopf	1998	Arnold Lobel	Arnold Lobel
10	Millions of Cats	Knopf	1998	Wanda Gag	Wanda Gag
11	Blueberries for Sal	한국프뢰벨	1999	Robert McCloskey	Robert McCloskey
12	Where the Wild Things are	Knopf	1998	Maurice Sendak	Maurice Sendak
13	Harry the Dirty Dog	Knopf	1998	Gene Zion	Margaret B. Graham
14	If You Give a Pig a Pancake	Scholastic	1998	Laura Numeroff	Felicia Bond
15	Swimmy	Knopf	1998	Leo Lionni	Leo Lionni
16	Mike Mulligan and His Steam Shovel	Knopf	1998	Virginia L. Burton	Virginia L. Burton
17	The Runaway Bunny	Scholastic	1982	Margaret W. Brown	Clement Hurd
18	Brenda and Edward	한국프뢰벨	1999	Maryann Kovalski	Maryann Kovalski
19	Madeline	Knopf	1998	Ludwig Bemelmans	Ludwig Bemelmans
20	Gullible's Troubles	Knopf	1999	Margaret Shannon	Margaret Shannon

<TT-번역된 그림책>

번호	도서명	출판사	출판연도	글작가	그림작가	번역가
1	잘 자라, 프란시스	비룡소	2004	리셀 호번	가스 윌리엄즈	이경혜
2	털끝 하나도 까딱하면 안 되기	한국프뢰벨	1999	애리카 실버맨	S.D. 스친들러	이상희
3	당나귀 실베스터와 요술 조약돌	다산기획	2000	윌리엄 스타이크	윌리엄 스타이크	이상경
4	피튜니아, 공부를 시작하다	시공주니어	2004	로저 뒤봐쟁	로저 뒤봐쟁	서애경
5	물고기는 역시 물고기야!	한국프뢰벨	1999	레오 리오니	레오 리오니	안찬수
6	아기 오리들한테 길을 비켜주세요	시공주니어	2004	로버트 머클로스키	로버트 머클로스키	이수연
7	내가 아빠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베들북	2004	샘 맥브래트니	아니타 제랍	김서정
8	게으른 피봉이	한국프뢰벨	1999	마이클 쿨만	기베스 윌리암슨	박영충
9	개구리와 두꺼비는 친구	비룡소	2004	아놀드 로벨	아놀드 로벨	엄혜숙
10	백만마리 고양이	시공주니어	2004	완다 가그	완다 가그	강무환
11	딸기 따는 셸	한국프뢰벨	1999	로버트 머클로스키	로버트 머클로스키	김서정
12	괴물들이 사는 나라	시공주니어	2004	모리스 샌닥	모리스 샌닥	강무홍
13	때묻은 강아지 헤리	보림	1995	진 자이언	마가렛 블로이 그레이엄	이현주
14	아기돼지에게 팬케이크를 주지 마세요	한국프뢰벨	1999	라우라 조페 누메로프	펠리시아 본드	토끼와 거북
15	으뜸 해엄이	마루벌	2004	레오 리오니	레오 리오니	이명희
16	마이크 멀리건과 증기 삽차	시공주니어	2004	버지니아 리버튼	버지니아 리버튼	서애경
17	아기토끼 버니	문진미디어	2001	마가렛 와이즈 브라운	클레먼트 허드	공경희
18	브렌다와 에드워드	한국프뢰벨	1999	마리안 코발스키	마리안 코발스키	신지식
19	씩씩한 마들린느	시공주니어	2004	루드비히 베멀먼즈	루드비히 베멀먼즈	이선아
20	껌뽕이가 괴물을 만났어요	한국프뢰벨	1999	마가렛 샤논	마가렛 tishs	장미란

[Abstract]

The Speakability Norm in Translating Children's Literature

Shin, Jisun
(Sejo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translational norm in terms of "speakability". The significance of speakability must be recognized in translating children's literature, which is often intended for reading aloud. The authors writing books for children fully understand how reading aloud affects children both emotionally and linguistically. Translating stories for oral rendition is particularly important for children who cannot yet read. Translators, however, do not seem to be aware of this as much as authors do, which necessitates the establishment of the speakability norm in translating children's literature.

In order to propose the translational norm, the present essay analyzed twenty English picture books to read aloud, their Korean translations and twenty authentic Korean picture books. Due to phonological differences between English and Korean, the translators employed a unique method to improve the speakability of the target text: the use of Euisung-uh (onomatopoeia) and Euitae-uh (mimesis), the symbolic words imitating sound, movement, shape, state, etc. Korean has a great number of Euisung-uh and Euitae-uh giving readers a pleasant auditive impression through a rhythmic repetition of syllables and words. Consequently, their active use in children's literature is widely recommended in Korea to appeal to listening children. Euisung-uh and Euitae-uh were abundant in authentic Korean picture books, but not in translated children's books. English does not have as many symbolic words as Korean, which leads to the infrequent use of those words in

the translations. Accordingly, a translational strategy using many Euisung-uh and Euitae-uh in translating children's literature would be conducive to improving speakability in translation.

▶Key Words: children's literature, norm, speakability, read aloud, onomatopoeia

신지선

세종대 번역학과 박사과정

ideadom@yahoo.com

019-415-9399, 569-9399

논문투고일 : 2005년 4월 7일

심사완료일 : 2005년 5월 20일

게재확정일 : 2005년 6월 10일

K C I